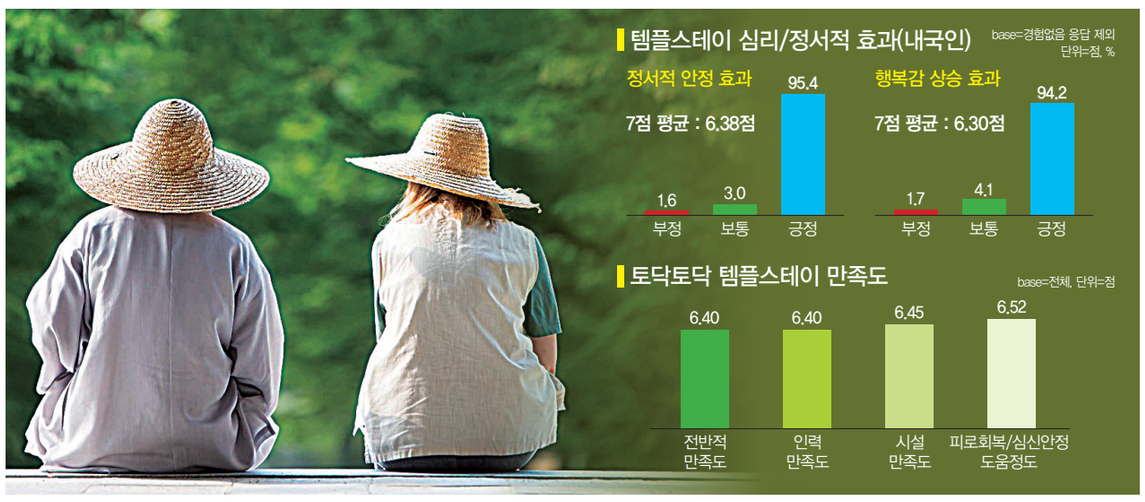
템플스테이, 코로나 시대 대국민 힐링 견인

문화사업단, 내외국인 참가자 만족도 조사 발표

내 · 외국인 만족도 만점 가까워
참가자중 95% "정서 안정" 응답
첫 토닥토닥 템플스테이 성공적
템플스테이 인지도 꾸준히 상승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대부분 재충전과 심신 안정을 위해 템플스테이를 찾아 경험했고, 이를 통해 95%의 참가자들이 정서적 안정과 행복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국민 10명 중 2명이 템플스테이를 경험했고, 대국민 인지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 이하 문화사업단)은 지난 2019년 11월 13일부터 2020년 11월 15일까지 내 · 외국인 템플스테이 참가자 가운데 총 1만 9706명(내국인 1만 8,400명, 외국인 1,3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2월 16일 공개했다.

문화사업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템플스테인 내국인 참가자의 종합 만족도는 총 7점 만점에 6.47점, 외국인은 6.49점으로, 내외국인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템플스테이 참가 동기로 내국인은 휴식 및 일상의 재충전을 55.6%로 가장 높게 꼽았다. 그 다음으로 자아성찰 및 심신안정이 27.1%였다. 참여 연령은 20대가 31.1%로 가장 많았고, 30대(21.9%), 50대(20.2%) 순이었다. 특히 20대 참가율이 지난해 24.5%에서 7% 가량 상승한 것은 고무적이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템플스테이 체험의 심리적, 정서적 효과를 묻는 설문에 대해 내국인 참가자의 약 95%가 "템플스테이 체험 후 정서적인 안정과 행복함이 상승했다"고 답해 템플스테이의 정서적 안정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외국인 참가자들은 템플스테이 체험 동기로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33.6%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자아성찰 및 심신안정이 21.6%, 불교문화에 대한 관심이 16.1%, 사찰 프로그램 경험이 10.4%의 순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참가자의 58.6%가 20대로 앞선 조사보다 약 18%가 높아져 내외국인 모두 20대 참가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문화사업단은 지난해 코로나19 대응 의료진 및 방역 관계자를 대상으로 최대 3박 4일간 템플스테이를 무료 지원한 '토닥토닥 템플스테이' 만족도 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토닥토닥 템플스테이 만족도 조사는 2020년 5월 8일부터 2020년 12월 4일까지 토닥토닥 템플스테이 참가자 가운데 총 37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반적인 만족도는 총 7점 만점에 6.40점으로, 체험자의 96%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토닥토닥 템플스테이 만족도 조사의 세부 항목별로는 피로회복 및 심신안정 도움이 6.52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시설 만족도가 6.45점, 인력 만족도가 6.40점으로 대체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템플스테이 인지도 조사도 공개됐다. 내국인 남녀 1000명(만 19세 이상 60세 미만)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 인지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82.2%가 '템플스테이를 알고 있다' 고 응답했다. 이는 2019년조사인 79.1%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꾸준히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일반 국민 10명 중의 2명 정도인 19.5%가 '템플스테이를 참가한 경험이 있다' 고 응답했다.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정신적, 심리적 피로를 완화하고 치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에는 67.5%가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등 템플스테이의 사회적 가치를 대다수가 높게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은 "코로나19로 야기된 사회불안과 갈등 치유, 심신안정과 힐링에 템플스테이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조사 결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진행했으며, 신뢰수준은 95%에 허용오차는 ±0.7%이다.

검찰, 나눔의집 이사들 횡령 의혹 등 모두 '무혐의'

이사 5명에 대한 수사 결과
'혐의없음' 불기소 사건종결
법원도"이사해임 일단 정지"



검찰이 이사 스님들에 대한 의혹과 관련 '무혐의' 로 사건을 종결했다. 사진은 나눔의집 전경.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 이사들을 둘러싼 후원금 횡령 등 의혹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월주 스님과 성우 스님 등 이사 5명에 대한 후원금 횡령 혐의 등을 조사한 결과 '무혐의' 로 사건을 종결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업무상 횡령 등으로 제소된 나눔의집 이사 스님 5명에 대해 1월 28일 '혐의없음' 으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피의사건 결과통지에 따르면 검찰은 이사 스님들의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이 이사 스님들의 무혐의 · 불기소를 확정함에 따라 나눔의집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특히 검찰의 이번 수사결과가 현재 진행 중인 경기도의 이사 해임명령 취소 소송에도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경기도가 나눔의집 법인 이사 5명에 대해 처분한 해임명령의 핵심적인 근거가 후원금 유용 및 횡령,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대한 법률 위반 의혹 등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도는 나눔의집 이사회가 광주시와 경기도의 감사결과를 전면 수용하고 즉각적인 개선 작업에 착수했음에도, 이사 해임을 명령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등의 조치를 강행해 '과도한 행정처분' 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법인 이사 스님들을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일부 내부직원들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언론 등을 활용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가 잇따르면서, 이사 스님들의 명예 실추는 물론 법인 이사회 나아가 불교계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하락 등 심각한 피해로 이어진데 따른 것이다. 무엇보다 검찰이 이사 스님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이미 실추된 이미지는 쉽게 회복될 수 없을 것이란 시각도 적지 않다.

나눔의집 상임이사 성우 스님은 "검찰 조사를 통해 나눔의집 이사들에게 제기됐던 여러 의혹들이 해소돼 늦게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현재 해임명령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나눔의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길 바란다"며 "불교계, 그리고 스님들이 지난 30여년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나눔의집을 운영해 온 원력이 퇴색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2월 15일 나눔의집 이사 5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취소소송의 심리를 종결하고 "해임무효소송 판결 전까지 해임명령의 집행을 일단 중지하되 직무집행정지는 유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는 경기도가 월주 스님과 성우 스님 등 나눔의집 법인 이사 5명에 대해 처분한 해임명령의 적법성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지기 전까지 해임을 사실상 유예한 것으로, 현재 해임명령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들의 이사 권한행사의 범위에도 일부 제동이 걸리게 됐다.

나눔의집은 애초 2월 16일 오후 2시 이사회를 열고 경기도 해임명령에 따라 '이사 해임의 건' 을 다룰 예정이었지만, 법원 판결에 따라 해당 안건을 제외한 채 업무공백 최소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차기 이사회는 3월 2일, 3월 16일 개최될 예정이다.

송지희 기자

범종 · 향림 스님, 종회의원 무투표 당선

중앙선관위, 2월 17일
후보 자격 '이상 없음'

조계종 중앙종회 보궐선거에 고운사와 관음사 단독후보로 나선 범종 스님과 향림 스님이 각각 무투표 당선자로 확정됐다. 통도사 중앙종회의원은 경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세영)는 2월 17일 제17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 입후보자 자격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종회의원에 단독출마한 범종 스님과 23교구본사 관음사 종회의원에 단독출마한 향림 스님, 제15교구본사 통도사 종회의원에 출마한 범용, 보화, 성화 스님의 후보자격에 이상없음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단독 후보자인 법종 스님과 향림 스님은 무투표 당선자로 17대 중앙종회의원으로 확정됐다.

범용 · 보화 · 성화 스님 3인이 후보로 출마한 통도사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는 3월 4일 보궐선거를 통해 경선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송지희 기자

황희 신임 장관, '문화뉴딜'에 관심 요청

2월 17일 원행 스님 예방서



황희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이 코로나19로 타격입은 종교 · 문화계 활로 모색을 위해 문화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한 '문화뉴딜' 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히고 불교계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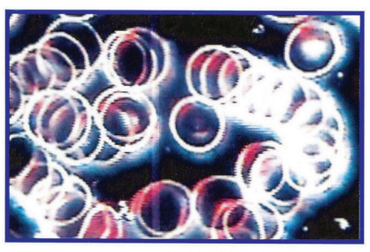
황희 문체부 장관은 2월 17일 취임 인사차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우리나라의 역사와 함께 해 온 불교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돼줬다"며 "코로나19로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의 안정과 문화 활성화에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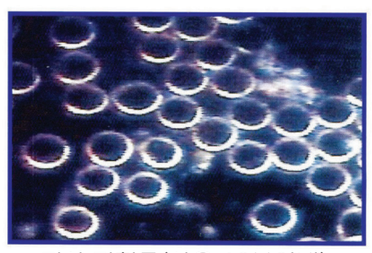
송지희 기자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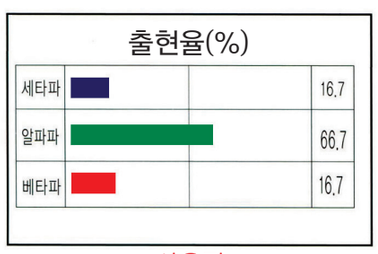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적극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생혈액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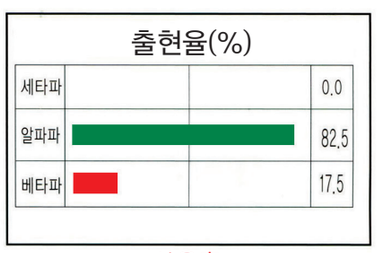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 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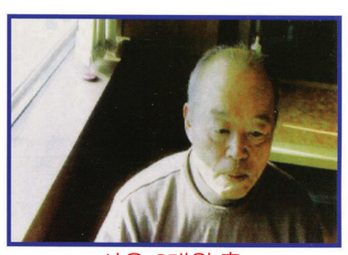
사용전



사용후

검버섯 제거 현상


사용전


사용 6개월 후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생기는 다리 쥐나는 것, 목, 어깨, 허리통증, 무릎관절 등은 피가 맑아져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자연치유되어 뇌파가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집니다.

항균 폐렴균 · 대장균 ·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는 폐렴균 99.9% 정균감소는 폐렴균에 의한 모든 폐렴질환을 예방할 것이며 대장균 99.9% 정균감소는 식중독, 배탈, 설사를 예방하고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는 아토피, 검버섯, 무좀, 비듬, 사타구니 가려움증, 발뒤꿈치 각질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때를 일부러 밀지 않고 비누거품으로 마사지만 해주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가 투명하고 매끄러우며 윤이 나므로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보습효과가 뛰어납니다.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냄새, 노인냄새 제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게르마늄 허브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BLOOD MATE® 강비누:120g 2개 100,000원
BLOOD MATE® 순비누:120g 4개 100,000원
ORAL MATE® 치 약:120g 3개 63,000원

~~263,000원~~ ➡ SET 구매시 100,000원

◈ 혈액건강 ◈
◈ 두뇌건강 ◈
◈ 세포건강 ◈

세상에 이런 세정제를 보셨습니까?

㈜에이스 삼강 02)353-9692 , 010-2791-3696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